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5. Vol. 10, No. 4, 375 - 394

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 자살 생각간의 관계

이 지 연 김 효 창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스트레스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그리고 청소년의 자살 생각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4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고등학생 6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첫째,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둘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살 생각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스트레스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모두 자살 생각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셋째, 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에 대한 예방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살 생각

청소년 자살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10대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9.7명에서 19.13명으로 증가해 10대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2). 자살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에는 일반 사고로 위장된 자살 사건이나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건, 자살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자살 시도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청소년 자살행동은 더욱 빈번하고 심각할 것으로 추론된다(Kleck, 1988).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1동 22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820-5125. E-mail : hyunmh @cau.ac.kr

더욱이 자살률에 더해 자살시도와 자살의도까지 고려한다면 청소년의 자살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청소년 자살과 관련하여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문제해결기술 등이 자살 생각과 관련이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이 밝혀졌는데, 그 중 우울증은 단일요인으로는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밝혀졌다(전영주, 2001). 그러나 자살행동과 우울이 상호 관련성은 있으나 자살행동을 시도한 청소년이 반드시 우울증에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청소년 모두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도 아니라 사실과 청소년 자살자 중 임상적으로 진단될 수 있는 우울증이 발견된 경우가 10% 미만이었다는 연구는 청소년 자살을 단지 개인의 정신건강 측면으로만 볼 수는 없음을 시사한다(Shneidman, 1985).

청소년 자살은 성인 자살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성인 자살의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시도가 많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평소 잘 기능하던 정상 청소년도 심한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충동이나 또는 남을 조종하거나 보복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으로서 자살을 택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이 행하는 자살 행동은 대부분 죽으려는 의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방편이나 현실도피의 충동적 행동, 또는 자신의 급박한 정서상태와 절실한 요구를 알리는 신호 등으로 볼 수 있다(Blau & Gullotta, 1996). 성인기로 갈수록 치명적인 자살률은 증가하지만 자살 시도율은 청소년기에 가장 높다(Fremouw, Perczel & Ellis, 1990)는 사실과 첫 번째 자살시

도를 실패한 청소년의 10%만이 1년 내에 자살을 재시도하고 나머지 90%는 자살 재시도가 없으며, 자살시도를 한 대부분의 청소년이 자살시도 후 1개월 정도 지나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한다(Hawton, 1986)는 사실은 청소년의 자살행동 동기의 특징을 잘 입증한다(오세진, 임영식, 1999).

성인 자살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많은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변인이 스트레스이다. 청소년은 자아의식이 발달하고,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억제된 환경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을 갖는데, 이러한 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때 종종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충동성이 강해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자살이다(이경진, 조성호, 2004; 정혜경, 2001; Adams, Overholster & Spirito, 1994).

청소년 자살은 사회구조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등 복잡하고 상호 관련된 여러 사회심리적 요인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는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자살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전영주, 이숙현, 2000 재인용).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가족요인으로는 부모의 결혼관계, 부모의 신체적 질병,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자살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연구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Rudd, 1990).

청소년기 스트레스와 자살의 관계

스트레스 사건은 일반적으로 중대한 생활사건과 일상적 생활사건으로 구분된다(Lazarus & Folkman, 1984). 중대한 생활사건이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이혼, 자신의 갑작스런 질병 등 빈번하게 발생되지는 않으나 당사자에게는 큰 변화를 일으키는 생활사건을 의미한다. 반면 일상적 생활사건이란 외로움, 소중한 물건의 분실, 가족원간의 다툼, 떨어진 성적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흔히 경험하는 생활사건을 말한다.

초기 스트레스 연구는 중대한 생활사건을 중심으로 스트레스와 적응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Lazarus 와 Folkman(1984)은 중대한 생활사건보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hassles)가 심리·정서적 적응을 더 잘 예측한다고 보았으며, 많은 연구에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가 중대한 사건보다 건강이나 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데 설명력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DeLongis, Folkman & Lazarus, 1988).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연구는 일관되게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의 일상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보여주었다(Wilson, Stelzer, Bergman, Kral, Inayatullah & Elliot, 1995). 즉,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사건이 자살 행동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De Wilde, Kienhorst, Diekstra & Wolters, 1992)이며, 청소년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살률은 정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endin, 1987). 최근의 연구에서도 주요 스트레스 사건의 측정치보다 만성적이고 일상적인 생활 스트레스의 측정치가 자살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dward, 2002).

예를 들어, Dixon, Rumford, Heppner와 Lips (1992)는 주요 사건에 의한 스트레스 변인을 통제하고도 생활 스트레스(hassle)가 자살 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Metha와 McWhirter (1997)의 연구에서 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자살의도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경애, 구본용, 김원중, 송종용(1993)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부모로부터의 야단과 질책,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한 과중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살 충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요한 인물의 상실이나 그와의 갈등, 경제적 문제, 질병 등의 환경적 스트레스와 부모, 이성, 선생님과의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리되어 있고 역기능적이며 가족과의 갈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우선유, 1999), 이런 가족 내 갈등이 청소년의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Allen, 1987; Sands & Dixon, 1986). 특히 가족 문제 중에서 어머니와 자녀관계, 아버지와 자녀관계가 자살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Taylor & Stansfield, 1984). 청소년 자살 시도자는 가정 내에서 매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가족의 문제해결 기술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chael, Richard & Elizabeth, 1995; Taylor & Stansfield, 1984).

이밖에도 부적절한 친구 관계,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불만족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우선유, 1999). 학교 내에서 또래 집단이나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문제

를 지니게 되면 자존감이 저하되고 비행 행동으로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자살생각이나 자살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김운삼, 1997; 우선유, 1999; 전영주, 이숙현, 2000). 결국 심한 스트레스는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지 못한 청소년으로 하여금 현실도피의 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게 한다(한국청소년 개발원, 1996). Wilson 등(1995)도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은 자살 시도 전 몇 주 혹은 몇 달 전에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했고, 스트레스 사건의 통제 정도를 부정확하게 평가했다고 하였다.

청소년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살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부정적인 가족 경험이 가장 강조되어 왔다. Lester(1987)는 자살위험과 자살시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부모갈등을 제시하였으며, Grob, Klein과 Eisen(1983)은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중요한 원인으로, 가족의 의사소통 부족과 부모와의 갈등을 제시하였다. 박광배와 신민섭(1991)은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부모와의 갈등을 제시하였으며, 우울증의 가족사와 가족 갈등, 청소년기의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부재, 부모의 별거, 이혼, 폭력 등의 역기능적인 가정환경 등은 자살율과 상관관계가 높았다(Hendin, 1985; Smith & Crawford, 1986). 청소년의 자살행동 사례들은 가족체계 내의 심각한 결손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 내의 결손문제는 위와 같은 커다란 상실경험 뿐만 아니라 어느 특별한 자녀에게만 사랑을 준다거나 가족성원으로서의

귀중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느낌으로부터 연유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은 자녀의 심리 역동적인 조화에 영향을 미쳐 강한 자살충동에 시달리게 할 수도 있다(Brown, 1985).

청소년 자살의 중요한 보호요인인 사회적 지지 또한, 우울을 통제할 경우 또래의 지지보다는 가족의 지지가 자살을 보다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ynolds & Walts, 1984). 가족 간의 유대가 밀접할수록 청소년의 자살률은 감소하였는데, 가족 간의 유대가 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지로 작용하여 자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때문이다(Pfeffer, Klerman, Hurt, Kakuma, Peskin & Siefker, 1993).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가족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가족 환경적 요인 중 많은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변인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다. 청소년기는 부모에 대한 기존의 애착 및 의존적 태도에서 벗어나 갈등 및 긴장관계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이는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업과 연계된 자연스런 관계변화로 이 시기가 되면 기존 관계의 붕괴로 인해 상호작용 패턴과 역할의 재조정 및 부모 자녀관계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요구된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간에는 서로에 대한 기대와 가치,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와 애정을 발전시키며, 자녀의 인성과 행동 발달 및 사회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Barnes와 Olson(1985)은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순환모델에 기초하여, 가

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이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을 방해하는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의사교환을 주저하고 주제 선택에 조심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말한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은 부모와 갈등을 적게 느끼며 심리적 적응을 잘하고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 성향이 낮으며 학업성적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오남, 1994).

Wodarski와 Harris(1987)의 연구에서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가족 요인으로 부모-자녀 관계와 가족 내의 의사소통 부족이 제시되었다. 조사표본의 90%에서 부모와의 오해된 감정이 자살요인으로 드러난 연구결과(Mehr, Zeltzer, & Robinson, 1981)와 가족구조의 불안정과 지지체계의 부족이 자살요인으로 밝혀진 연구결과(Shafii, Carrigan, Whittinghill & Derrick, 1985)도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요인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János 등(2003)의 최근 연구에서 자살적-우울 청소년과 비자살적-우울 청소년의 본질적인 차이는 청소년의 우울 증상에 대한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 지각의 차이에 있음이 밝혀졌다. 즉, 비자살적인 우울집단의 청소년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개방적이어서 부모와 청소년의 우울증상 보고가 일치하는 반면, 자살적-우울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와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어 그 증

상에 대한 보고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자기-공개(Self-disclosure)가 부족할수록 더욱 치명적인 자살 시도와 관계된다는 연구결과(Apter, Horesh, Gothekf, Graffi & Lepkifker, 2001)와, 자살을 하는 청소년의 가정은 부모와 극단적인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가정 분위기가 폐쇄적이어서 부모-자녀간에 정서적 분리가 일어난다는 Pfeffer 등(1993)의 지적은 자살행동에 대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의 자살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스트레스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살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스트레스는 청소년 자살에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부적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이 일관되게 밝혀졌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첫째, 스트레스를 하위 구성요인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하나의 생활스트레스로 취급함으로써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이 자살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간과하였으며 둘째, 스트레스를 세분화하여 살펴본 몇몇 연구는 스트레스를 서로 다른 하위 요인으로 분류한 후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일관되고 일치된 연구결과를 얻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경진과 조성호(2004)는 생활스트레스를 생활스트레스, 가정의 화목도, 학교생활만족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정혜경, 안옥희, 김경희(2003)는 학교요인, 대인관계요인, 가정적 요인, 정서적 요인, 신체적 요인으로, 전영주, 이숙현(2000)은 학교환경 및 생활사건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살에 대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영향력과 관련하여서는 아버지와 자녀간 의사소통과 어

머니와 자녀간 의사소통의 영향력이 서로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누어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이경진, 조성호, 2004).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청소년 자살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영향력을 각기 나누어 살펴봄으로서 청소년 자살과 스트레스, 그리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변인의 관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는 생활스트레스가 자살 행동으로 이어지는 중간과정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Rudd, 1990), 이것은 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 하에서 사회적 지지가 약한 사람은 자살 충동을 경험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결여는 자살 행동과 많은 관계가 있고,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살 행동에 대한 가장 좋은 예측 변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Morano, Cisler & Lemerond, 1993). 또한 De Wilde, Kienhorst, Diekstra, 및 Wolter(1994)의 연구결과, 자살 시도 위험이 높

은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가 적었다. 위기과정에서 동료나 친구들은 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새로운 대처방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위기 상태에서도 새로운 도움을 찾도록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은(김진숙 등, 1977)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자살 충동간의 관계를 밝힌 임수영(1996)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을 매개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1의 모형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첫째, 스트레스 하위 요인이 청소년 자살 생각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과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각각이 자살 생각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자살 생각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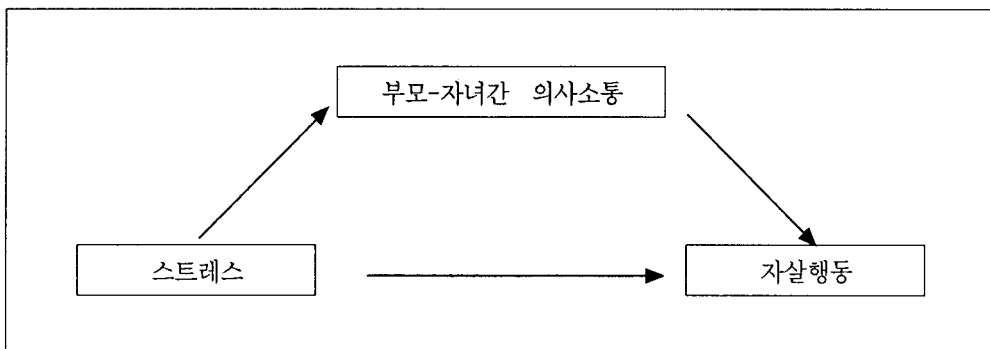


그림1. 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자살행동간의 관계

방법 및 절차

조사대상

서울과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4곳에 재학 중인 학생 6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불충분한 응답을 한 30명을 제외한 65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자 281명(43.0%), 여자 373명(57.0%)이었으며, 학년 분포는 1학년 207명(31.7%), 2학년 346명(52.9%), 3학년 101명(15.4%)이었다. 학업성적과 가정경제는 학생 스스로가 상, 중, 하에 체크하도록 하였는데, 학업성적 분포는 상 102명(15.6%), 중 444명(67.9%), 하 102명(15.6%)이었으며, 가정경제 분포는 상 68명(10.4%), 중 528명(80.7%), 하 53명(8.1%)이었다.

측정도구

스트레스 측정

스트레스의 측정은 원호택(1988)과 최혜림(1986)의 대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대응 질문지를 바탕으로 김미숙(1994)이 수정하고 최정곤(1997)이 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스트레스의 근원에 따라 학교생활, 교우관계, 자기문제, 환경문제, 가정생활의 5개 영역으로 각 영역 당 10문항씩 총 5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 구성 요소별 대표적 문항으로는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나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이다', 교우관계 스트레스는 '나는 진실하게 마음 터놓을 친구가 없다', 자기문제 스트레스는 '나는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 고민이

다', 환경문제 스트레스는 '나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다', 가정생활 스트레스는 '부모님은 나의 행동을 지나치게 간섭하신다' 등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전혀 그렇지 않다(1)' - '항상 그렇다(5)'의 5점 척도 상에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전체의 내적 합치도 계수 α 는 .92 였으며,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78, 교우관계 스트레스는 .77, 자기문제 스트레스는 .80, 환경문제 스트레스는 .76, 가정생활 스트레스는 .83 이었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측정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Barnes와 Olson(1985)이 제작한 부모-청소년기 자녀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 PACI)를 김윤희(1989)가 번안한 것 중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Adolescent Form)을 재편집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청소년 자녀의 지각을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개방성 의사소통과 문제성 의사소통의 2개 하위척도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하위척도별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청소년기 자녀간 의사소통 척도는 아버지-청소년기 자녀간, 어머니-청소년기 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해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각기 측정되었다.

개방성 의사소통을 묻는 문항은 '내 질문에 아버지(어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다.' 등이며, 문제성 의사소통은 '나는 무슨 일에 대한 내 진심을 아버지(어머니)께 그대로 말씀드릴 수 없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전체 점수는 문제성 의사소통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역코딩한 후, 이를 개방성 의사소통과 더하여 전체 문항수로 나눔으로서 구해진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며 문제성이 적고, 점수가 낮을수록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문제성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신뢰도 계수 α 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의 경우 .93, 어머니와의 경우 .92,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문항 전체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92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 측정

자살 생각은 Beck의 Scale for Suicide Ideation(SSI; Beck, Kovacs & Weissman, 1979)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SI는 자살시도 전에 자살에 대한 생각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나 희망을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하여 현재 지닌 의식적인 자살의도의 정도를 수량화시킨다. 원래 임상면접을 통해 임상가가 평정하는 3점 척도로 된 19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이나, 본 연구에서는 많은 피험자를 일일이 면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신민섭 등(1990)이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변형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즐겁고 보람되게 느껴진다.’, ‘자살시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자살시

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본 적이 있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고된 신뢰도 계수 α 는 .89(박광배 등, 199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얻은 신뢰도 계수 α 는 .95로 나타났다.

절 차

각 학교장과 담당 선생님의 동의를 얻은 뒤, 담당 선생님의 협조로 과목 시작 전에 사전 교육을 받은 담당 선생님이 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요령을 간략히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뒤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결 과

1. 스트레스 하위 요인들과 청소년 자살 생각간의 관계

스트레스 하위 요인과 청소년 자살 생각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스트레스와 청소년 자살 생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여겨지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이들 변인과 준거변인인 자살 생각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참조). 분석

표 1. 자살 생각과 인구통계학적 변인간의 상관

	성별	학년	종교유무	학업성적	형제수	형제항렬	가정경제
자살생각	.068	-.001	.040	.141**	.043	-.053	.155**

** $p < .01$, * $p < .05$

결과 자살생각은 학업성적($r=.141$)과 가정경제($r=.155$)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준거변인인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의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학업성적과 가정경제 변인을 1단계로 투입하였으며, 스트레스를 2단계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간에 유의한 정적 관계($\beta = .489, p < .01$)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하위 요인과 자살 생각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먼저, 학업성적과 가정경제 변인을 1단계로 투입하였으며, 스트레스 하위 요인을 2단계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살 생각에 대한 예측력이 높은 변인은 가정생활 스트레스, 학교생활 스트레스, 자기문제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설명변량과 모델의 적합도, 그리고 Beta 값 등을 고려해 볼 때, 가정생활 스트레스($\beta = .218, p < .01$)가 자살 생각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학교생활 스트레스($\beta = .146, p < .01$)와 자기문제 스

표 2.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간의 관계

		자살 생각
		Beta
1단계	학업성적	.033
	가정경제	.000
2단계	스트레스	.489**
R ²		.247**

** $p < .01$, * $p < .05$

주) 위의 Beta값은 2단계에서의 값임.

표 3. 스트레스 하위 요인들과 자살 생각간의 관계

		자살 생각
		Beta
1단계	학업성적	.018
	가정경제	.009
2단계	학교생활 스트레스	.146**
	교우관계 스트레스	.032
	자기문제 스트레스	.154**
	환경문제 스트레스	.084
	가정생활 스트레스	.218**
R ²		.256**

** $p < .01$, * $p < .05$

주) 위의 Beta값은 2단계에서의 값임.

트레스($\beta = .154, p < .01$)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스트레스의 하위 구성요인인 교우관계 스트레스와 환경문제 스트레스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정생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하위 요인과 청소년 자살 생각간의 관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하위 요인들과 청소년 자살 생각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살 생각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우선, 준거변인인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외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학업성적과 가정경제 변인을 1단계로 투입하였으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2단계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살 생

표 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살 생각간의 관계

		자살 생각
		<i>Beta</i>
1단계	학업성적	.060
	가정경제	.060
2단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436**
<i>R</i> ²		.215**

** $p < .01$, * $p < .05$

주) 위의 *Beta*값은 2단계에서의 값임.

표 5. 의사소통 하위 요인들과 자살 생각간의 관계

		자살 생각
		<i>Beta</i>
1단계	학업성적	.060
	가정경제	.060
2단계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	-.248**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226**
<i>R</i> ²		.215**

** $p < .01$, * $p < .05$

주) 위의 *Beta*값은 2단계에서의 값임.

각간에 유의미한 부적 관계($\beta = -.436, p < .01$)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원활할수록 자살 생각이 감소하며, 반대로 의사소통이 비개방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을수록 자살 생각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하위 요인과 자살 생각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우선, 학업성적과 가정경제 변인을 1단계로 투입하였으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하위 요인들을 2단계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beta = -.248, p < .01$)과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beta = .226, p < .01$) 모두 자살 생각에 대한 좋은 예측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두 요인 모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자살 생각을 낮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특이할 사항은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보다는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이 자살 생각을 더 잘 예측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3. 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자살 생각간의 관계

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살 생각간의 관계에 관한 모형(그림 1 참조)을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4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을 매개하는 변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첫째,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변인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하며 둘째, 스트레스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변인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하며 셋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살 생각 변인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통제한 상태에서 스트레스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그리고 자살 생각간의 관계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자살 생각 변인과 유의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스트레스는 자살 생각 변인과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가지거나 유의도가 기존의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간의 직접 경로의 유의도에 비해 작아져야 한다. 이와 같은 결과가 얻어져야만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을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변인간의 관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표 2) 유의한 관계($\beta = .489,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인 스트레스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변인간의 관계 또한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한 관계($\beta = -.564,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살 생각 변인간의 관계 역시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한 관계($\beta = -.436,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통제한 상태에서 스트레스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그리고 자살 생각 변인간의 관계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살 생각간에는 유의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간에는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거나 직접 경로보다 관계성이 유의하게 작아져야 한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자살 생각과 유의한 관계($\beta = -.254,$

$p < .01$)를 나타내고 있지만,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는 직접 경로에 비해 유의도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변인간의 관계를 부분

적으로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접 매개효과는 회귀분석 결과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예측변수(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변인간의 간접적 경로가 유의한지 여부를 확인하

표 6. 스트레스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간의 관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Beta
1단계	학업성적	-.008
	가정경제	-.007
2단계	스트레스	-.564**
R ²		.322**

** $p < .01$, * $p < .05$

주) 위의 Beta값은 2단계에서의 값임.

표 7.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살 생각간의 관계

		자살 생각
		Beta
1단계	학업성적	.060
	가정경제	.060
2단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436**
R ²		.215**

** $p < .01$, * $p < .05$

주) 위의 Beta값은 2단계에서의 값임.

표 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통제 한 상태에서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간의 관계

		자살 생각
		Beta
1단계	학업성적	.031
	가정경제	-.002
2단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254**
3단계	스트레스	.346**
R ²		.291**

** $p < .01$, * $p < .05$

주) 위의 Beta값은 3단계에서의 값임.

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Sobel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 검증에서 산출되는 Z점수가 유의하면 간접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Sobel 검증 결과($Z= 5.91, p<.01$), 자살 생각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변인을 간접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논의

급증하는 청소년의 자살률을 고려해 볼 때, 자살 생각과 그에 대한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자살 생각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첫째, 스트레스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각각이 청소년의 자살 생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둘째, 스트레스 하위 요인과 자살 생각간의 관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하위 요인과 자살 생각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은 유의한 정적 관계($\beta= .489, p<.01$)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 생각의 수준이 높다는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선행 연구(De Longis, Folkman, & Lazarus, 1988; de Wilde, et al., 1992; Dixon et al., 1992; Edward, 2002; Hendin, 1987; Schotte & Clum, 1982)와도

일치한다. 이는 부모의 이혼이나 중요한 상실의 경험 등 결정적인 스트레스 사건이 없는 경우라도 일상적인 스트레스원만으로도 자살 생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커다란 사건이 없는 경우에도 평소에 잘 기능하던 청소년이 갑작스럽게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이유를 이로써 설명할 수 있다.

스트레스 하위 요인과 자살 생각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정생활 스트레스($\beta= .218, p<.01$)가 자살 생각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학교생활 스트레스($\beta= .146, p<.01$)와 자기문제 스트레스($\beta= .154, p<.01$)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스트레스의 하위 구성요인인 교우관계 스트레스와 환경문제 스트레스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청소년이 가정생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청소년의 자살 생각은 대부분 가정생활에서의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는 이전의 많은 연구(박광배, 신민섭, 1991; Shafii et al., 1985; Spirito et al., 1989; Wagner, 1997)와 동일한 결과로 청소년에게 가정의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청소년은 아직 성인으로서 독립하지 못한 시기이므로 가정의 보호와 지지가 필요하다.

가정 스트레스 외에 학교 스트레스와 자기문제 스트레스도 자살 생각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는데, 학교 스트레스의 경우, 만성적인 과열입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자기 스트레스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자아정체감의 위기와 이에 따른 좌절, 갈등을 경험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한다. 교우관계 스트레스는 자살 생각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이는 청소년 자살자를 대상으로 한 이전의 연구 결과(Shafii et al., 1985; Davidson, Rosenberg, Mercy, Franklin & Simons, 1989; Brent, Perper, Moritz, Baugher, Roth, Balach & Schweers 1993)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살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친구보다는 가족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연구결과(Reynolds & Walts, 1984)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둘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살 생각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살 생각간에 유의한 부적 관계($\beta = -.436, p < .01$)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원활할수록 자살 생각이 감소하며, 반대로 의사소통이 비개방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자살 생각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전 연구(장미숙, 2000; Grob, Klein, & Eisen, 1983)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부모와의 갈등을 적게 느끼며 심리적 적응을 잘하고 높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우울성향을 보이며 학업성적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다는 김오남(199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하위 요인과 자살 생각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beta = -.248, p < .01$)과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beta = .226, p < .01$) 모두 자살 생각에 대한 좋은 예측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두 요인 모두 의사소통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자살 생각을 낮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보다는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이 자살 생각을 더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전통적 관념에서 볼 때 아버지와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본 연구 결과는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을 매개하는 변인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변인간의 관계($\beta = .489, p < .01$)와 스트레스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변인간의 관계($\beta = -.564, p < .01$), 그리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살 생각 변인간의 관계($\beta = -.436, p < .01$)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살 생각간의 관계($\beta = -.254, p < .01$)와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간의 관계($\beta = .346, p < .01$)가 모두 유의한 관계를 갖지만,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간의 관계는 직접 경로에 비해 유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Sobel 검증을 통해 예측변수(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변인간의 간접적 경로가 유의한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Z = 5.91, p < .01$), 자살 생각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변인을 간접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라도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살 생각이 낮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있는 청소년에게, 부모는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자녀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반응을 제공하는 등의 정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녀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을 같이 모색하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제시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일방적인 잔소리와 명령만으로 이루어지는 권위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상의 결과는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첫째,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는 가정내 스트레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학교와 자기스트레스에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개방적인 대화를 시도할 때 자살 생각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부모가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자녀가 어려운 일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살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력이 부족하고 동일시할 따뜻한 부모상이 결여되어 있다는 김향초(1993)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부모의 관심과 대화는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성세대의 권위와 간섭에 반항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 인해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인 대화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 또한 이 시기이다.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이 아닌, 상호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부모의 과보호와 과잉통제는 오히려 상호적인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부모의 과보호는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울증을 초래하기도 한다(오옥진, 1998, 이소미, 2002). Blatt, Wein, Chevron과 Quinlan(1979)의 연구에서는 우울증 환자의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하도록 지켜보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독려시키기 위한 인내심이 부족하며 과도하게 간섭하는 특징을 가진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대한 예방과 치료적 장면에서의 개입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일상적으로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부모가 적극적으로 관심으로 가지고 그들의 고민과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호적으로 대화를 나눈다면, 청소년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켜주고 자살 생각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살 시도 이후의 청소년의 경우에도, 자살 행동으로까지 표현하고자 또는 요청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부모가 차근차근히 개방적인 분위기의 대화로서 풀어나가고자 한다면 커다란 긍정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결과, 자살 생각에 대한 스트레스 하위 요인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하위 요인의 영향력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을 매개함에 있어 스트레스 유형에 따라 혹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하위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후 이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스트레스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한 반응 그리고 자살 생각 등에 있어 남녀간의 성차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하위 요인에 있어 남녀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남녀간의 성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이 추후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특정 도시의 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졌다. 자료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역과 연구대상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오남 (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 지각과 가족 스트레스.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운삼 (1997). 청소년 자살동기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윤희(1989). 부부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숙, 김용태, 반신환, 이소우, 조성호 (1997). 청소년 위기 상담. 서울: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향초 (1993). 청소년자살의 심리사회적 요인분석 및 예방대책 연구. 청소년학 연구, 1(1), 167-181.
- 박경애, 구본용, 김원중, 송종용 (1993). 청소년 자살행동연구. 서울:청소년 대화의 광장.
- 박광배, 신민섭 (1991).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0(1), 298-314.
- 박광배, 신민섭, 오경자, 김중술 (1990).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 20-32.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임상, 9, 20-32.
- 오세진, 임영식 (1999). 청소년 자살과 예방. 사회과학연구, 제12집, 141-158,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오욱진 (1998).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관계지향성 및 성취지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선유 (1999).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 석사학위 논문.
- 이경진, 조성호 (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67-685.
- 이소미 (2002).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수영 (1996).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장미숙 (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영주 (2001). 우울증을 매개로 한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관한 가족 및 학교환경의 경로분석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39(1), 151-167.
- 전영주 이숙현 (2000). 청소년의 자살 구상과 관련 변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7(1), 221-246.
- 정혜경 (2001).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아동간호학회지, 7(4), 483-493.
- 정혜경, 안옥희, 김경희 (2003).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0(2), 107-126.

- 최정곤(1998).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스트레스 및 비행.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2). 「사망원인통계」.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6). 청소년문제론. 서울:서원.
- Adams, D. M., Overholster, J. C., & Spirito, A. (1994). Stressful life events associated with adolescent suicide attempts.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 39*, 43-48.
- Allen, B. P. (1987). Youth suicide. *Adolescence, 22*, 271-289.
- Apter, A., Horesh, N., Gothelf, D., Graffi, H., & Lepkifker, E. (2001). Relationship between self-disclosure and serious suicidal behavior. *Comprehensive Psychiatry, 42*, 70-7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rne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latt, S. J., Wein, S. J., Chevron, E. & Quinlan, D. M. (1979). Parental representations and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 388-397.
- Blau, G. M., & Gullotta, T. P. (1996). Adolescent dysfunctional behavior. *Sage*.
- Brent, D. A., Perper, J. A., Moritz, G., Baugher, M., Roth, C., Balach, L., & Schweers, J. C. (1993). Stressful life events, psychopathology, and adolescent suicide: a case-control stud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3*, 179-187.
- Brown, S. L. (1985). Adolescents and Family System. In M. L. Peck, N. L. Davidson, L. E., Rosenberg, M. L., Mercy, J. A., Franklin, J., & Simons, J. T. (1989). An epidemiologic study of risk factors in two teenage suicide cluster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2*, 2687-2692.
- DeLongis, A., Folkman, S., & Lazarus, R. S. (1988).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health and mood: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as media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3), 486-495.
- De Wilde, E. J., Kienhorst, I. C., Diekstra, R. F., & Wolters, W. H. G.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and life event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9*, 45-51.
- De Wilde, E. J., Kienhorst, C. W. M., Diekstra, R. F. W., & Wolters, W. H. G. (1994).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sychologically distressed adolescents at high risk for attempting suicide. *Adolescence, 29*(113), 49-102.
- Dixon, W. A., Rumford, K. G., Heppner, P. P., & Lips, B. J. (1992). Use of different sources of stress to predict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342-349.
- Edward, C. C. (2002). Predicting suicide ideation in an adolescent population: examining the role of social problem solving as a moderator and a mediat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1279-1291.
- Fremouw, W. J., De Perczel, M., & Ellis, T. E. (1990). *Suicide risk assessment and response guidelines*. N.Y.: Pergamon Press.

- Grob, M., Klein, A., & Eisen, S. (1983). The role of the high school professional in identifying and managing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163-173.
- Hawton, K. (1986).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Newbury Park, CA Sage.
- Hendin, H. (1985). Suicide Among the Young: Psychodynamics and Demography. In M. L. Peck, N. L. Farberow, & R. E. Litman (Eds.), *Youth Suicide*(19-38). N.Y.: The Springer Series on Death and Suicide.
- Hendin, H. (1987). Youth suicide A psychosocial perspective.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17*, 151-165.
- János, C., Sándor, R., Júlia, G., Ágnes, V., Emilia, K., Ernoke, S., Judit, M. & Krisztina, K., (2003). Suicidal depressed vs. non-suicidal depressed adolescents: difference in recent psychopatholog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4*, 229-236.
- Kleck, G. (1988). Miscalculating suicides. *Suicide and Threatening Behavior, 18*, 219-236.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 Lester, D. (1987).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ress. *Journal of Home Economics. 73*(3), 17.
- Mehr, M., Zeltzer, L. K., & Robinson, R. (1981). Continued self-destructive behaviors in adolescent suicide attempters: part I.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Care 1*(4), 269-274.
- Metha, A., & McWhirter, E. H. (1997). Suicide ideation, depression, and stressful life events among gifted adolescent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0*, 284-304.
- Michael, K., Richard, H., & Elizabeth, D. (1995). Brief home-based intervention with young suicide attempter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Adolescence, 18*, 557-568.
- Morano, D., Cisler, R. A., & Lemerond, J. (1993).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Loss, insufficient family support, and hopelessness. *Adolescence, 28*(112), 851-865.
- Pfeffer, C. R., Conte, H. R., & Plutchik, R. (1993). Suicidal behavior in latency-age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8*, 679-692.
- Reynolds, W. M., & Waits, J. A. (1984). *Adolescent Hassles Inventory*. Unpublished Scale.
- Rudd, M. D. (1990). An integrative model of suicidal ide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0*, 16-30.
- Sands, R. G., & Dixon, S. L. (1986). Adolescent crisis and suicidal behavior.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3*, 109-122.
- Shafii, M., Carrigan, S., Whittinghill, J. R., & Derrick, A. (1985). Psychological autopsy of completed suicid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2*(9), 1061-1064.
- Schotte, D. E. & Clum G. A. (1982). Suicide ideation in a college population: A test of a mode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690-696.
- Shneidman, E. (1985). *Definition of Suicide*. New York:Wiley.
- Smith, K. & Crawford, S. (1986). Suicidal behavior among "normal" high school students. *Suicide Life Threat Behavior, 16*, 313-325.
- Spirito, A., Brown, L., Overholser, J. & Fritz, G. (1989). Attempted suicide in adolescence: A

- review and critique of the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9, 335-363.
- Taylor, E. A., & Stansfield, S. A. (1984). Children who poison themselve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5, 127-135.
- Wagner, B. M. (1997). Family risk factors for child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21, 246-298.
- Wilson, K. G., Stelzer, J., Bergman, J. N., Kral, M. J., Inayatullah, M., & Elliot, C. A. (1995). Problem solving, stress, and coping in adolescent suicide attemp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5, 241-252.
- Wodarski, J. S. & Harris, P. (1987). Adolescent suicide: a review of influences and the means for prevention. *Social Work in Health Care*, 32, 477-484.

논문접수일: 2005년 5월 14일

수정논문접수일: 2005년 9월 7일

게재결정일: 2005년 10월 13일

The Relationship of Stres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uicide Ideation among Adolescent

Ji-Yeon Lee Hyo-Chang Kim Myoung-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of stres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uicide ideation among adolescent. In result, stress had positive effect on suicide ideation. In other words, the higher stress level is, the more suicide ideation is performed. Another finding is that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had negative effect on suicide ideation. The mediation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was supported. These results means that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buffer against the effect of life-stress which everyone experience on suicide ideation. Finall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several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lso suggested.

Keywords : Stres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uicide ideation